



**2017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문인력(기획자) 해외문화예술동향 리서치
(2018년 2월, 스페인)**

2018.03.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17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문인력(기획자) 해외문화예술동향 리서치
2018년 2월 _주 스페인 한국문화원 [강민경]

□ 목차

No.	구분		내용	page
1	현지동향		ARCOMadrid 2018 - 예술 표현의 자유 논쟁	3
2			2018년 유럽 문화유산의 해 The European Year of Cultural Heritage 2018 우리의 유산 :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곳(where the past meets the future)	4
3	문화 예술 디렉 토리	기관 및 단체	La Red Española de Teatros, Auditorios, Circuitos y Festivales de Titularidad Pública	6
4		공간	그라나다컨퍼런스센터 / Palacio de Congresos Granada	7
5		축제 및 행사	헤레스 플라멩코 축제 / Flamenco de jerez / Jerez Flamenco Festival	8
6			유럽 아동극축제 FETEN / La Feria Europea de Artes Escénicas para Niños y Niñas	9
7			바야돌리드 국제 영화제 Valladolid International Film Festival Semana Internacional de Cine de Valladolid(스페인어)	10

□ 현지동향

1. 현지 동향 (1)

유형	전시	장르	전통
관련링크	https://www.mecd.gob.es/prensa-mecd/en/actualidad/2017/12/20171222-medallas.html		
ARCOMadrid 2018 - 예술 표현의 자유 논쟁			

스페인 국제현대아트페어(FERIA INTERNACIONAL DE ARTE CONTEMPORÁNEO, ARCO) 37회 행사가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IFEMA 전시관에서 개최되었다.

아르코(ARCO)는 스페인어 'Arte Contemporaneo'의 약칭으로, 스페인 미술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1982년부터 시작되어 매월 2월에 개최되고 있다. 현재는 매해 250여 개 화랑이 참가하고 150,000명이 관람하는, 스위스 바젤, 독일 쾰른, 미국 시카고, 프랑스 파리 아트페어와 함께 세계 5대 국제아트페어 중 하나로 손꼽힐 정도로 성장하였다. 회화, 조각 등 전통 미술 장르를 비롯하여 사진, 설치미술, 비디오아트, 뉴미디어, 판화 등 현대 미술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전시회로 세계 미술계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는 국제견본시 역할을 하고 있다.

2007년에는 한국이 ARCO의 주빈국으로 참여하여, “Corea Ahora(지금 한국)”라는 주제로 14개 한국 화랑이 38명의 작가들을 선보였을 뿐 아니라 주변 전시장과 영화관, 콘서트 등을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 37회를 맞이한 ARCOmadrid 2018은 29개국 208개의 갤러리가 참여하였고, 아방가르드, 회화, 조각, 설치, 사진, 비디오, 뉴미디어, 판화 등 다양한 작품들이 소개되었다.



(사진1 ARCOmadrid 2018을 관람하는 전문가들)



(사진2 ARCOmadrid 2018 행사장 입구)

올해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예년과 달리 주빈국을 두지 않고, 유명 큐레이터들의 특별 기획 프로그램을 꾸린 점이다. 추스 마르티네스(Chus Martínez), 엘리세 라머(Elise Lammer)와 로사 예오(Rosa Lleó)는 “미래는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El futuro no es lo que va a pasar, sino lo que vamos a hacer)”을 주제로 19개 갤러리와 19명의 예술가를 선정하여 특별전시가 진행되었다. 또한 María de Corral, Lorena Martínez de Corral, Catalina Lozano Marri 등 큐레이터들이 선정한 갤러리, 예술가들과의 대화 섹션, 젊은 큐레이터들의 특별전들이 함께 진행되었다.

한편 ARCOmadrid에서는 Santiago Sierra의 <현대 스페인의 정치범들(Presos políticos en la España contemporánea)>이라는 작품과 관련하여 예술의 “표현의 자유” 이슈가 있었다. 이 작품은 모자이크 처리된 흑백 인물 사진 24점과 각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지난 해 카탈루냐 독립과 관련하여 중앙 정부에 체포되어 투옥된 Oriol Junqueras와 Jordi Sánchez, Jordi Cuixart가 포함되어 있었다. 왕과 왕비가 참석하는 개막행사를 앞두고 주최측인 IFEMA는 이 작품을 철거하였고 논란이 커지자 “행사 진행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창작물에 대한 검열은 아니다”고 발표한 후 다시 작품을 설치하였다.

1. 현지 동향 (2)			
유형	기념행사	장르	문화유산
관련링크	https://europa.eu/cultural-heritage/european-year-cultural-heritage_en http://mecd.gob.es/prensa-mecd/actualidad/2018/02/20180213-patri.html		

2018년 유럽 문화유산의 해 The European Year of Cultural Heritage 2018

우리의 유산 :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곳(Where the past meets the future)



2018 유럽문화유산의해 로고
(출처 : 유럽문화유산의해 홈페이지)

유럽의회는 2018년을 유럽문화유산의 해로 정하고, 한 해 동안 유럽 각국에서 문화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 등을 진행한다.

유럽의 역사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유럽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처음 제기된 ‘유럽문화의 해’ 아이디어는 유럽의회가 2016년 8월 유럽문화의 해에 대한 제안을 발표하며 구체화 되었다.

유럽문화유산의 해 원년인 2018년에는 유럽의 각국과 지역에 걸쳐 다양한 문화유산을 기념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문화 유적과 만나도록 하고, 유럽의 유대감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 행사들이 유럽 전역에서 개최된다. 2018 문화유산의 해를 위해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 유럽위원회를 비롯한 EU의 모든 기관들이 나서며, UNESCO 등 관련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교육 활동, 문화 유산의 재활용을 위한 연구, 문화재 불법거래와의 전쟁 등의 장기프로젝트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유산은 건축물과 기념물, 공예품, 의복, 미술과 책, 기계, 역사적인 마을과 유적지와 같은 유형의 유산과 관습, 표현, 지식, 도구와 관련된 기술, 시민의식, 언어, 구전되는 전통과 공연예술, 사회적 운동과 전통 공예와 같은 무형유산 뿐 아니라 자연경관, 동식물과 디지털 형태로 창작되었거나 보존할 수 있는 리소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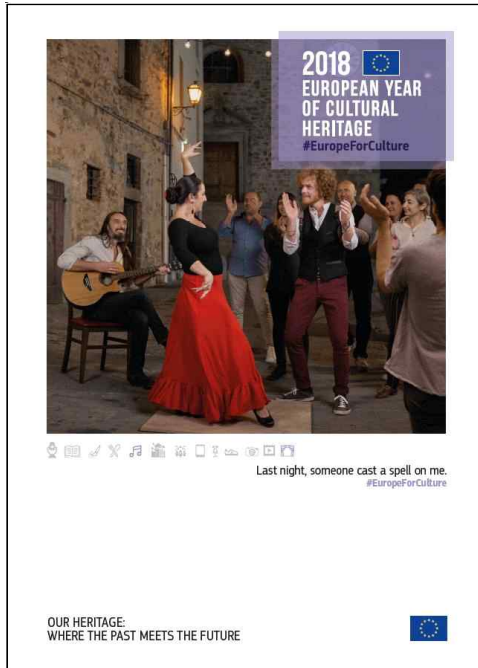
문화유산은 개인, 공동체, 사회로서 우리에게 보편적 가치를 지니며,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 문화유산은 단순히 과거에서 온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관계되어 있고 진화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발견하고 문화 간 소통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삶이 더욱 풍성해 지고 미래를 건설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유럽 문화 유산의 해(2018)를 위한 예산은 약 8백만 유로로, 이 중 3백만 유로는 크리에이티브 유럽 프로그램을 통해 충당된다. 2018년 유럽문화의 해 동안 28개 나라에서 7840개의 행사가 진행되며 1,120,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인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46개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무형유산까지 더하면 총 62개로 세계에서 중국 다음, 유럽에서는 가장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스페인 정부는 2018년 유럽문화유산의해와 관련된 컨퍼런스, 전시회, 총회, 워크숍, 컨퍼런스, 세미나 및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행사를 문화부와 자치주 차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럽 문화유산들을 경험하고 역사와 공통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여 유럽 연합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페인에서 예정되어 있는 주요 행사로는 유럽문화수도 살라망카와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 쿠엥카 등에서의 회의, 시망카의 왕실문서기록보관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행사, “스페인, 렌즈 아래 : Juan Laurent와 문화유산사진” 순회 전시,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 순례자의길(Camino de Santiago)과 관련된 사진전 및 문화유적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다양한 컨퍼런스, 문화재의 불법 거래 방지 협약을 회의 등이 있다.



2018 유럽문화유산의해 포스터
(출처 : 유럽문화유산의해 홈페이지)



스페인의 UNESCO 세계문화유산 중 쿠엥카 성곽도시

□ 문화예술 디렉토리

I. 문화예술 디렉토리 <기관 및 단체>

기관/단체명	La Red Española de Teatros, Auditorios, Circuitos y Festivales de Titularidad Pública		
유형	비영리협회	장르	문화공간
운영주체			
소재지	마드리드	설립년도	2000년
기관현황	스페인 전역 154개 공공극장(700여개 문화공간)		
홈페이지	https://www.redescena.net/home/index.php		

기관 및
단체



La RED 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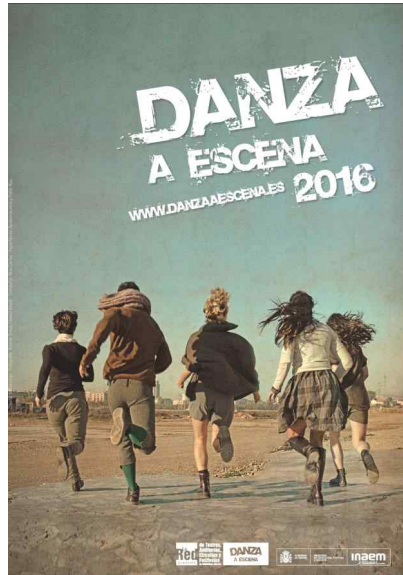
(출처 : La RED 홈페이지)

La RED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관객의 개발과 교육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양질의 공공극장 프로그래밍을 보장하고, 기관들 간의 협력과 유럽 및 이베로 아메리카 국가와의 협력을 장려한다.

현재 La Red의 회원기관으로 스페인 전역 154개의 공공 극장들과 12개 지역의 예술 협회가 함께하여 총 700여개의 공간이 포함된다.

La RED는 문화예술과 사회, 경제, 교육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Danza a Escena, Escuela de Verano, Redescena 등의 우수한 예술 프로젝트를 직접 제공하고 있다.

2010년 시작된 'Danza a Escena'는 무용분야를 장려하기 위해 State Federation of Companies and Dance Companies (FECED)와 협력한 프로그램으로, 무용단체와 La RED 소속 기관의 만남을 주선하고 사례비의 일부를 La RED가 지불하는 프로젝트이다. '여름학교 (Escuela de Verano)'는 무대기술과 경영분야의 전문가들을 위해 여름에 진행되는 특별 교육프로그램이다. 2004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되는 스페인의 공연예술시장인 MERCARTES 역시 La RED의 프로젝트이다.



Danza a Escena 소개자료 표지
(출처 : La RED 홈페이지)



여름학교 소개자료 표지
(출처 : La RED 홈페이지)

* TIP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

II. 문화예술 디렉토리 <공간>

공간명	그라나다컨퍼런스센터(Palacio de Congresos Granada)		
유형	공간	장르	복합
운영주체	Palacio de Congresos de Granada S.A		
소재지	그라나다	설립년도	1992년
공간현황	대극장/중극장/야외극장, 다목적 및 컨퍼런스 홀, 전시실 등		
홈페이지	http://www.pcgr.org/		

공간

그라나다 컨퍼런스센터(Palacio de Congresos de Granada)는 안달루시아의회와 그라나다 시 의회가 1987년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공사를 시작하여 1992년 세비야 국제박람회와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개최된 해에 오픈하였다. 2012년부터는 민간기관인 Palacio de Congresos de Granada S.A이 운영하고 있다.

건물의 설계를 맡은 빌바오 출신의 유명 건축가인 Juan Daniel Fullaondo는 알함브라 궁전과 시 에라 네바다 산맥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그라나다를 대표하는 건축물 중 하나가 되었다.

그라나다 컨퍼런스 센터는 예술과 혁신의 만남을 지향한다. 혁신적인 예술 작품들을 소개하고, 열려있는 지식의 아고라이자 만남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그라나다 시민들에게 창조적 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고, 도시 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콘서트, 오페라, 뮤지컬, 발레, 연극 등 공연을 비롯하여, 각종 국제규모의 컨퍼런스와 박람회, 전시회 등이 개최되고 있다.

컨퍼런스센터는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9석 규모의 가르시아 로르카 극장은 안달루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공연장 중 하나이고, 638석의 야외 극장과 547석 규모의 마누엘 팔라 극장이 있다.

컨퍼런스를 위한 마차도-피카도룸은 같은 모양의 2개의 공간이 분리되거나 합쳐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는 컨퍼런스를 위한 공간이다. 알베니스-마추카룸 역시 각 160석 규모의 공간이 합쳐지거나 분리될 수 있다. 그 외에 전시를 위한 2개 홀, 다목적홀 9개, 소규모 행사를 위한 VIP룸과 프레스룸, 8개의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다.



Palacio de Congresos Granada 외관

III. 문화예술 디렉토리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헤레스 플라멩코 축제 (Flamenco de jerez / Jerez Flamenco Festival)		
유형	공연축제	장르	플라멩코
운영주체	헤레스 시		
개최시기	2-3월	시작년도	1997년
개최도시	마드리드		
참가규모	헤레스 데 프론테라(Jerez de la Frontera)		
홈페이지	www.festivaldejerez.es https://www.spanish-fiestas.com/festivals/jerez-flamenco-festival/		

축제 및 행사



2018 JEREZ 플라멩코 축제 포스터
(출처 : 축제 홈페이지)

매해 2월에서 3월사이 세리주의 고장인 스페인 남부 헤레스에서 국제 플라멩코 축제가 열린다.

플라멩코의 고향은 안달루시아지역으로, 학자들은 그 중에서도 헤레스와 세비야, 카디스를 플라멩코 발상지로 지목하고 있다. 큰 집시 커뮤니티와 무어성을 특징으로 하는 헤레스의 독특한 매력과 매일 이루어지는 플라멩코 공연은 전세계 플라멩코 애호가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헤레스는 이런 예술적 기반으로 20세기 초반부터 유명 플라멩코 예술가들을 배출한 도시로서 명성도 가지고 있다.

특히 축제기간 동안에는 세계 각국의 유명 플라멩코 댄서와 가수, 기타리스트들의 공연이 이어지고, 학생들뿐 아니라 초보자와 노인들을 위한 플라멩코 워크샵과 강좌도 함께 진행된다. 공연은 주로 비야마르타(Villamarta) 극장을 중심으로 로메로 마르티네즈 광장(Plaza Romero Martinez)과 비야비센시오 궁(Palacio de Villavicencio), 보데가 로사아포 스톨레스(Bodega Los Apostoles) 등에서 진행되지만 Santiago지역의 바에서도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안달루시아플라멩코 센터에서는 플라멩코 전시도 함께 진행된다.

2018년 22회 국제 플라멩코 축제는 스페인국립발레단의 플라멩코 공연으로 개막을 알렸다. 2월 23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Flamenco, tradition and avant-garde'를 주제로, 플라멩코의 세대교체를 시도하고, 일본, 아프리카 등 다른 문화와 만나 플라멩코가 확장되는 공연들을 선보였다. 또한 40여개의 플라멩코 워크샵에는 30여개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함께하며, 전체 관람객의 50%이상이 해외에서 온다고 한다.



JEREZ FESTIVAL 2018 Antonio Rey 공연사진
Fotografías de Javier Fergo para Festival de Jerez
(출처 : 축제 홈페이지)



JEREZ FESTIVAL 2018 /스페인 국립발레단 공연사진
Fotografías de Javier Fergo para Festival de Jerez
(출처 : 축제 홈페이지)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유럽 아동극축제 FETEN (La Feria Europea de Artes Escénicas para Niños y Niñas)		
유형	축제	장르	아동극, 야외극
운영주체	히혼 시		
개최시기	2월	시작년도	1991년
개최도시	히혼 시		
참가규모	2018년 10개국 82개 공연		
홈페이지	http://feten.gijo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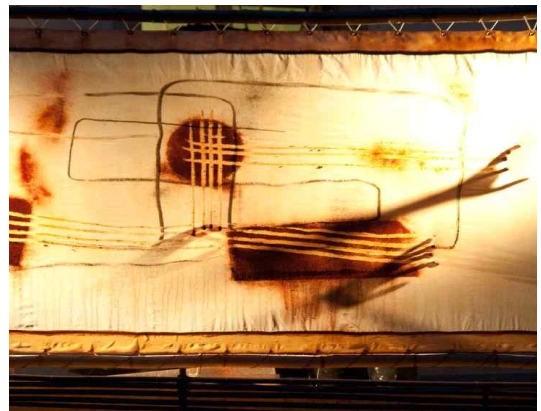
스페인 북부의 히혼(Gijón)에서 개최되는 유럽아동극축제 FETEN(La Feria Europea de Artes Escénicas para Niños y Niñas. The European Performing Arts Fair for Children)가 2월 18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었다.

FETEN은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권 아동극의 프로그래머와 극단들,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 교류하고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직접적으로 프로젝트나 프로덕션의 교류가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어린이 공연예술 작품들의 질적 향상과 품격을 높이하고자 1991년에 시작되었다. FETEN은 공연, 프리젠테이션, 부스전시 뿐 아니라 사회와 문화, 다양한 관점에서 활동하는 아동 및 청소년 극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진행되는 토론회와 회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인과 사회, 문화의 소통의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FETEN은 젊은 관객들에게 공연의 다채로움을 즐길 수 있는 스페인과 유럽의 공연을 선보이고, 대중의 지식과 이해를 증진시켜, 아이들이 창작 공연의 관객이 되도록 돕고 있다. 공연단체들에게는 그들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고, 프로그래머에게 극장조건과 시설에 맞는 공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각종 소통과 정보 전달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FATEN 2018 메인 이미지
(출처 : FETEN 홈페이지)



FETEN 2018 최고작품상 수상작 <Tierra Efímera>
(출처 : Colectivo Terrón극단 홈페이지)

올해 27회를 맞이한 FETEN 축제에는 10개국 82개의 공연이 선정되어 공연되었다. 프로그램에는 클래식 음악부터 아동극, 거리극, 그림자극, 인형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 및 컨퍼런스, 워크숍, 체험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었고, 해외작품으로는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프랑스, 벨기에, 헝가리, 노르웨이, 포르투갈 작품 등이 소개되었다.

행사 마지막날인 23일 오후 5시반부터 열린 시상식에서는 Colectivo Terrón극단의 <Tierra Efímera>가 최고작품상을 받았다.

FETEN의 예술감독인 마리안 오사카(Marián Osácar)는 히혼시 문화재단 예술진흥부서의 책임자로, 마드리드 왕립예술학교에서 연극학을 전공했고, 연출이자 배우, 연극 교사로 활동해왔다.

축제/행사명	바야돌리드 국제 영화제 Valladolid International Film Festival Semana Internacional de Cine de Valladolid(스페인어)		
유형	영화제	장르	예술영화
운영주체			
개최시기	10월	시작년도	1991년
개최도시	바야돌리드 (Valladolid)		
참가규모	2017년 (제62회) : 총 233편		
홈페이지	http://seminci.es/ http://www.kobiz.or.kr/new/kor/02_overseas/festival/festivalView.jsp?type=FESTIVAL&cd=20061010&seq=21646		



바야돌리드 영화제 로고

(출처 : 영화제 홈페이지)

Seminci 혹은 Semana로도 알려져 있는 바야돌리드 국제영화제는 1956년 시작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명성있는 영화축제 중 하나이다. 주로 독립영화와 작가영화를 소개하며, 첫 해에는 부활절과 연계하여 바야돌리드 종교 영화 주간으로 시작되었고, 1973년 바야돌리드 국제영화주간으로 바뀌었다가, 참가 영화와 프로듀서들의 참가가 늘어나며 종교적 색을 제거하고 일반 영화제로 발전하였다.

초기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감독이나 촬영감독 등을 소개해 왔으며, 잉그마르 베르히만(Ingmar Bergman), 루이스 부뉴엘(Luis Buñuel), 프랑수아 트뤼포(François Truffaut), 안제이 바이다(Andrzej Wajda), 페데리코 펠리니(Federico Fellini), 에르마노 올미(Ermanno Olmi) 일마즈 귀니(Yilmaz Güney), 로베르토 로셀리니(Roberto Rossellini), 스탠리 도넨(Stanley Donen), 막스 오펔스(Max Ophüls), 켄 로치(Ken Loach), 미조구치 겐지(Kenji Mizoguchi), 오즈 야스지로(Yasujiro Ozu) 등의 감독과 아드만 스튜디오(Aardman Animations) 등의 제작사 등이 이 영화제를 통해 스페인에 알려졌다.

바야돌리드 영화제는 늘 위험을 감수한 프로그래밍의 혁신을 시도한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움직임들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응시하며, 산업이나 상업이 아닌 영화 예술 자체에 대한 진심어린 관심으로 영화제의 정체성을 구축해왔다. 90년대 후반부터 픽션, 다큐멘터리가 애니메이션, 단편과 함께 상영되고 있다.

한국영화로는 2004년 김기덕 감독의 <빈집>이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였고, 2011년 황호길 감독의 단편 영화 <감자>가 초청된바 있으며, 2014년 제59회 영화제에는 봉준호 감독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였고, 명예상(Espiga de Honor)을 수상한 바 있다.